

재택근무·거리두기... '코로나 배려템' 뜬다

승강기 버튼 리미터 개조해 누르고 향균 필름 붙이고
땀개 마스크·빨대달린 마스크·수술용 PVC장갑 등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위생과 사회적 에티켓을 챙기기 위한 생활상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정교육이 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유행한 발명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7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곳의 2~3월 소음 방지용 놀이매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5% 급증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중간 소음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살과 6살 자녀를 둔 김보은(36·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씨는 "최근 층간 소음을 자체하자는 아파트 단지 방송을 듣고 놀이매트를 새로 장만했다"며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 자녀들을 위해 소음이 비교

적 덜 나는 놀이기구를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일상화 하기 위한 변형 제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광주 출신 아이돌 가수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운호)는 지난 달 직접 디자인한 '땀개 마스크'를 특허청에 출원·등록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등록한 이 디자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간편하게 땀개를 개방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련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위생과 관련한 대표적 상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이 2014년 4143건에서 지난해 6710건으로 5년



광주 출신 아이돌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운호)가 특허 출원한 '땀개 마스크'(왼쪽)와 승강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 개조된 리미터.



새 62% 증가했다.

국내 코로나19 창궐이 본격화된 2월에는 950건, 3월에는 1418건이 출원됐다. 지난 1월(506건)과 비교해 지난 달 출원은 180.2%나 늘었다.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지난해 2~3월 304건에서 올해 2~3월 789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유행한 아이디어를 만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다.

소셜미디어(SNS) 상에는 승강기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기 위해 다 쓴 립스틱에 코르크 마개를 씌우거나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리미터를 개조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주요 기업들은 건물 승강기 버튼에 향균 필름을 붙여 이용자를 안심시켰다. 빨대가 달린 마스크와 수술용 PVC 장갑도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온라인 상에서 호황을 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823.60 (+31.72) ↓ 금리(국고채 3년) 1.047 (-0.005)
- ↑ 코스닥 606.90 (+9.69) ↓ 환율(USD) 1221.20 (-8.10)

광주·전남 3월 주식거래 2년만에 최고

7억7232만주 전월비 35% ↑
지역 상장사 시총 2조 증발

7232만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주식투자자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이 지난 2018년 4월 이래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 상장기업 36개사 시가총액은 18조216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조9980억원(-9.88%) 감소했다. 전체시장 시가총액은 11.00% 감소했다.

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0년 3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주식거래량은 7억7232만주로 전월에 비해 34.69%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2조2307억원으로 전월 대비 59.43% 증가했다.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투자자 거래 상 위에는 삼성전자와 인텍스 인버스, 마스크·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종목 등이 몰려있다"며 "이는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증시 폭락장 속 단타 매매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주식거래량은 지난 2018년 4월 6조9296만주를 기록한 뒤 2년 만에 7억주를 넘으며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지역 주식거래량은 1월 4만8821만주→2월 5억7342만주→3월 7억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LG전자, 코로나 약재에도 튼튼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양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코로나19 약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7일 두 회사가 발표한 1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증권가 평균 예상치(컨센서스)를 웃돌았다. 특히 LG전자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삼성전자는 매출은 55조원, 영업이익은 6조4000억원을 거뒀다. 매출은 전 분기보다 8.1% 줄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4.9%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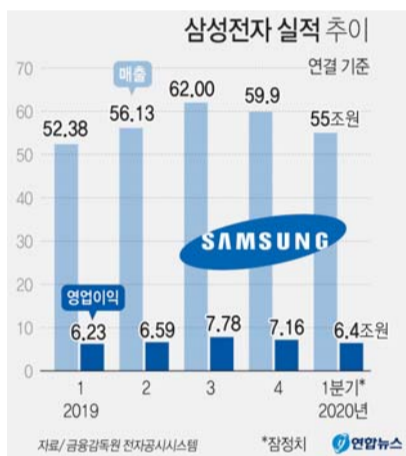
영업이익도 전 분기보다는 10.6% 감소했으나 지난해 1분기보다는 7.2% 늘었다.

삼성전자는 부문별 실적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는 양호하고 스마트폰 부문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6조원 안팎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7000억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LG전자 역시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LG전자는 매출 14조7287억원, 영업이익 1조904억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2%, 적자였던 전 분기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LG전자는 '상고하자' 계절성에 따라 생활가전(H&A) 부문과 TV(HE)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생활가전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13.3%)와 비슷하고, 매출은 2년 연속 5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봄 알리는 꽃무늬 차림이불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침구매장 직원들이 봄을 맞아 새로 나온 차림이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매장은 오는 19일까지 40~50% 침구 할인 행사를 벌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아시아나항공, 3000억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

자기 자본 대비 33.03%

아시아나항공은 30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7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자기 자본 9082억8800만원 대비 33.03%에 해당한다.

차입 목적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 차입 형태는 한도여신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산업은행 외화자금 보증(2152억원) 및 수출입은행 수입이행정보보증(848억원)의 한도여신 전용 관련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차입하기로 결정한 자금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스탠바이 LC 용도(보증신용장) 3000억원이다.

한도 대출 8000억원엔 아시아나항공이 전액 대출받아 사용했다. 이번 차입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금융기관쪽 차입금액은 1조5074억원, 단기 차입금은 2조3069억원으로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4세대 쏘렌토' AR체험 앱 인기

출시 5일만에 1만건 다운로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업계에도 비대면 마케팅이 인기를 얻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달 선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4세대 쏘렌토'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아자동차와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4세대 쏘렌토' 론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노션에 따르면 모바일 앱 '기아 플레이 AR'이 출시 5일 만에 다운로드 1만건을 달성했다.

'4세대 쏘렌토'는 국내 완성차업체 최초로 선보인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고객체험 앱을 선보이고 있다.

또 4세대 쏘렌토 시승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프터 6 페이스 체험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시승 행사와 달리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야간 등산이나 낚시, DIY(직접 조립) 클래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시승권을 제공한다. 지난달 17일부터 모임을 시작한 이 행사의 지원자는 2000명을 넘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조선의 신작 시집

꽃, 향기의 밀서

본시 땅위에 길이 없어 가는 사람에게만 길이 된다. 꽃도 풀이었다가 꽃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꽃이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꽃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내뿜어야만 꽃의 생애가 보이고 향기의 밀서도 받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오롯이 쌓아올린 철용성이 침묵의 결박을 풀고 물마루를 건너와 이야기하는 물옥잠의 향기로운 밀어에 귀를 기울인다. 꽃의 속삭임에는 애처로운 누이의 생애와 어머니의 새카맣게 애간장 타는 속울음이 있다. 꽃마다 대지의 조근조근한 숨길을 건너온 계절이 있다.

- 김광희시인

조선의 시인은 꽃의 시인이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이 무의미한 사물을 호명해 '꽃'으로 상징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했다면, 조선의 시인은 우리의 인식망에서 멀리 있던 실제 꽃들을 찬찬히 불러들여 고유의 향기를 부여했다. 꽃은 향기로 숨 쉰다. 그래서 꽃은 향기로 실존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시인의 꽃시는 꽃을 잃은 우리 시단의 꽃시이요, 향기 잃은 세상의 꽃씨다. 시인의 시집을 읽노라면 마치 시인이 테리고 나온 꽃들과의 나들이에 초대받은 기분이다. 향기 풀풀 나는 초대연에 한껏 취하고 만다.

- 김원수시인



시인 조선의

조선의 프로필

농민신문신춘문에 당선
김만중문학상
신석정초록문학상
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 초빙교수

기독신문에 당선
거제문학상
안정복문학대상 등 수상

조선의 시집

『당신 반칙이야』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어쩌면 쓰러린 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돌이라는 새』

